

## 11/1(수) 열왕기상 3

### 열왕기상 1:32-5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이후에 아도니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 약속을 이행한 다윗

어제 묵상한대로 밋세바와 나단은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합니다(삼하 12:25, “다윗이 그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도니야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록 몸은 노쇠하였지만 그의 정신마저 노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에서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33-3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명령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근위대를 말합니다. 둘째로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게 합니다. 노새는 당시에 수입한 것으로서 귀족 계급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나귀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새와 나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라고 명령합니다. 기름 부음의 행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행해지는데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은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뿔나팔은 양각 나팔을 말하는데 이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지만 왕의 즉위식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한편 왕의 즉위식이 행해진 곳은 기혼이었습니다. 기혼은 반역자들이 아도니야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에스로겔 근방 소헬렛과 약 650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9절, “아도니야가 에스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쥔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리고 이 소리를 주변에 있던 반역자들도 듣게 된 것입니다(41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45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 자포자기하는 아도니야

아도니야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반역을 그치고 각기 흩어집니다(49절, “아도니야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윗 왕의 근위대까지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상황에서 반역자들은 더이상 그들의 계획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 때 아도니야가 취한 행동은 성전의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50절,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출 21:12-13절을 기반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출 21:12-13,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후 모세 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 규례를 만들었고 성소의 제단과 도피성 규례는 가나안 정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아도니아의 행동에 솔로몬은 큰 은혜를 베풀어주게 됩니다(52-53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비록 아도니아는 그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그와 함께 한 부하들은 모두 버리고 알팍한 머리만 굴렸지만 솔로몬은 그를 살려주면서 지혜롭게도 조건적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비겁한 행위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를 용서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권 초기에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왕으로서 결국 다윗 왕의 약속대로 비록 아도니아의 반역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잘못은 그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무시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 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더이상 이 땅에서 왕노릇 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롬 6:22-23,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전쟁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정요엘(미얀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쉼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